근현대사 및 북한사에 집중적 관심

역사학에서의 진보적 인식틀과 그 영향 및 쟁점

정태헌
수원대 강사 · 사학

역사서술은 시대가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 객관적 史實 자체에 대한 서술방식이나 역사인식 자체가 바뀌게 마련이고 역사인식이 변하면서 이제까지는 구래의 역사인식 속에서 외면해 버리거나 또는 왜곡된 눈으로 보아왔던 史實들도 역사가의 새로운 눈에 새롭게 포착되고 事實 자체가 새롭게 발굴되기도 하여 새로운 역사상이 제시된다. 事實은 그 자체만으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가의 인식과 눈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대중들에게 나타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80년대는 한국현대사에서 변화의 한 획을 긋는다고 할 때 그러한 시대변화가 역사연구자, 특히 그러한 격동기를 전후하여 대학을 다녔던 소장연구자들에게(대체로 70년대 중반 이후 대학에 들어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여부는 있을지언정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젊은 연구자의 시각을 상대적 개념이지만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기성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소장학자들의 역사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도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역사인식(사회인식)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물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반 사회에서 세대차(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학문의 세계에서도 세대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세대차가 없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그러한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부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학의 대중화 선언

먼저 이 변화는 젊은 역사연구자들의 다양한 모임(1984년 '망원한국사연구실',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의 출범과 1987년 '망원한국사연구실'의 '한국근대사연구회'(이후 고중세사 연구자들의 가세로 1988년 '한국역사연구회'로 확대개편)와 '구로역사연구소'로의 발전적 분화)이 결성되는 것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이들은 공동연구라는 방식으로 연구성과물을 낸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공동연구의 수행 자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연구의 폐쇄성과 이기적 속성을 일정하게나마 벗어나려는 좋은 시도 자체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80년대 소장학자들과 기성학자들과의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냉전적 분단인식의 틀에 대한 이해에서 드러나는데 소장학자들의 주요 연구분야가 상당 부분 일제시기 이후 근현대사에 집중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80년대 이후의 근현대사 연구성과는 상당 부분 이들의 노력의 소산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이들의 연구시각은 6, 70년대 식민사학의 청산이라는 한국사학의 과제를 넘어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려는 데로 모아진다.

따라서 이들은 기성학계에서 금기시하던 인식틀을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하면서 역사연구가 책상이나 상아탑 속에서만 관념적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이들의 선언은 바로 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하여 될 수 있으면 알기 쉬운 문체로 쓰려 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학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내보이면서 비판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기성학계에서 완전히 백안시하던 북한사를 한국사 전체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도 이들의 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실제로 북한의 한국사 인식과 북한사를 정리해보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고 그 성과도 일부 공간되었다.

혹자는 소장학자들이 기성학계에 대해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체제수호적 보수사관에 사로잡힌 집단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기보다 '신념'에 입각하여 역사를 주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질타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소장학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자신들의 인식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아직 소화되지 못한 채 무리하고 생경한 모습으로 연구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이들의 문제의식 자체를 무위로 돌릴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기성학계 일부의 인식이 철저하게 관변과 냉전의 이념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 있지 못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80년대 소장학자들의 주요 연구분야가 상당부분 일제시기 이후 근현대사에 집중되는 것은 냉전적 분단인식의 틀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서 드러난다. 이들의 연구시각은 6, 70년대 식민사학의 청산이라는 한국사학의 과제를 넘어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려는 데로 모아진다.

문제의식의 구체적 성과

문제의식만으로 바로 연구성과가 나올 수는 없다. 사실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역사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의식이 구체적 연구성과로 나타나고 기성학계의 성과와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것은 일정한 소화 기간을 거친 후인 80년대 후반기 들어서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개별논문이나 학위논문은 논외로 하고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 회원들의 공동연구성과만 들면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기간행물을 제외하면 이들 성과는

이의용 컬러예화집
돈이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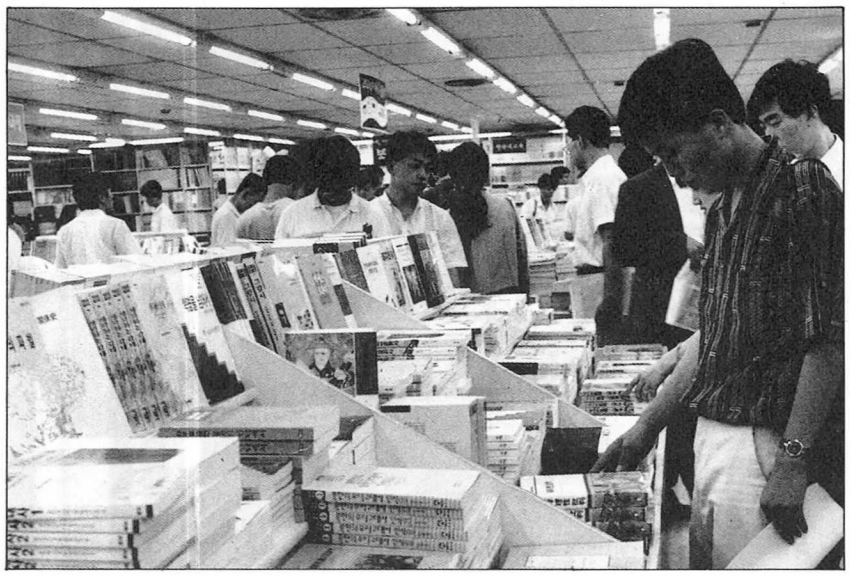
신국판 / 153쪽 / 값2, 800원

신국판 / 153쪽 / 값3, 3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165편이 여기에 있다"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진실은
단 한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도서 출판 대림기획 TEL : 268 - 4902 FAX : 277 - 6946



많게는 15명 이상 적게는 5~6명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 통사류

① 한국민중사연구회,「한국민중사」(1, 2), 1986, 풀빛

② 한국역사연구회,「한국사강의」, 1989, 한울(1990년 증보판)

③ 구로역사연구소,「바로 보는 우리 역사」(1, 2), 1990, 거름(1991년 개정판)

① 의 출간은 주지하다시피 5공시대 역사서술상의 시비로 출판인이 구속되고 1987년 역사학대회에서 550여명의 역사학자들이 학문성과를 사법적 판단으로 탄압해서는 안된다는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불과 몇년 지난 오늘의 시각에서는 상식화되어 버린 것이긴 하지만(그만큼 그간의 역사인식 발전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존의 역사서술과 다른 새로운 역사인식에 대해서 탄압하겠다는 당시 지배층의 의지를 잘 드러내준다.

이 책은 역사서술의 영역을 계층적으로는 더 하층민중 중심으로 확대시켰고 시간적으로는, 80년대 전반까지 공간적으로는, 북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확대시킨, 종래의 통사보다 훨씬 진전된, 역사와 시대발전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통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후 내용적으로 ① 보다 진보된 통사체제로 ② 와 ③ 이 나왔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② 가 일반 대학 강의교재용으로 기술된 것이라면 ③ 은 쉽게 서술된 일반 대중용 통사라고 할 수 있다.

● 시대사류

① 망원한국사연구실,「한국근대민중운동사」, 1989, 돌베개

② 한국역사연구회,「한국현대사」1~4, 1991, 풀빛

③ 한국역사연구회,「조선정치사」(1, 2), 1991, 청년사

① 이 개항 전후의 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의 민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사를 기성학자들이 도외시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까지 서술한 것이라면 ② 는 8·15 이후의 현대사를 각 시대별로 4권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이다. ③ 은 근대사 전개의 기로였던 19세기의 정치사를 두권으로 서술하였다.

● 공동연구에 의한 주제 분석

① 망원한국사연구실,「1862년 농민항쟁」, 1988, 동녘

②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문제연구소,「3·1민족해방운동 연구」, 1989, 청년사

③ 역사문제연구소,「민족해방운동사-쟁점과 과제」, 1990, 역사비평사

① 은 현재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개항 직전 농민항쟁의 성격을 분석한 것으로 방대한 지역 사례연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까지의 연구를 한단계 높혀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② 는 두 연구단체가 3·1운동 7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것이다. ③ 은 개항 이후 식민지시대의 민족해방운동 연구의 여러 관점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를 분석한 책이다.

● 정기간행물류

①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 1987~(현재 13호까지)

② 한국역사연구회,「역사와 현실」, 1989~(현재 4호까지)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학계의 큰 성과를 꼽으라면 그 하나로 필자는「역사비평」의 출간을 든다. 이를 전후로 하여 계간지 무크지 형식으로 다양한 대중용 또는 전문잡지들의 출간 붐을 일으키는데 ① 은 1987년 창간호만 무크형식으로 출간되고 이후 계간지로 정착되어 결코 쉽지 않은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사의 제반문제를 테마별로 비교적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반면에 ② 는 소장연구자들의 전문논문을 독자적인 통로를 통해 출간하고 있다.

● 북한사(역사인식)류

①「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근현대편), 1989, 일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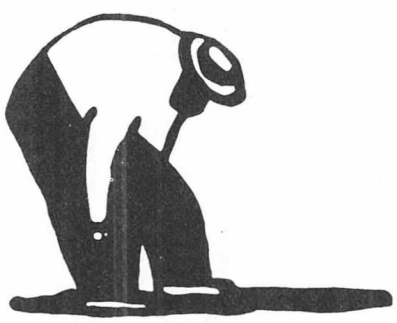
②「북한의 역사인식」(1, 2), 1990, 한길사

80년대 특히 중반 이후 사실상 백지상태에 가까웠던 북한에 대한 실상과 그들의 역사인식은 무엇인가라는 대단히 기초적인 의문을 최소한이나마 풀어준 책들이다. 물론 필자들마다 논점과 관점이 틀려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주제별로 북한에서의 한국사서술과 인식체계를 정리했다는 데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시간과 인력을 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사람은 모두가 성공자였다

성공자는 스피드를 절약합니다



기획 및 제작 대행

광고제작의 모든 것 /북디자인 /회고록 /단행본 /기업 홍보물 /팜플렛 /카다록 상품패키지 디자인 /기타 인쇄관련 모든 것

전자조판 시스템

어떠한 PC데이타도 99%이상 호환 성공 /아무리 많은 양의 원고도 일시에 처리

아이디어 뱅크

출판 원고은행 운영 /광고 및 출판 COPY 제작 /기타 출판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

기획 편집인을 찾습니다

만나보고 싶다
인간적이기를 고집하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
시대를 앞서가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
풍부한 감각을 지닌 당신을

한솔기획

전화 722-3866 / 735-4997 팩스 739-8791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